家庭暴力에 關한 硏究*

— 아내 학대를 中心으로 —

A Study of Family Violence

— On the Basis of the Wife Abuse —

曉星女子大學校 家庭大學 家庭管理學科

副敎授 : 金 正 玉

Dept. of Home Management
Hyo-S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 Kim, Jung Ok

目 次

Ⅰ. 序 論
Ⅱ. 理論的 背景
1. 暴力의 槪念
2. 暴力發生에 關한 理論的 接近
3. 아내暴力에 대한 關聯變因別 考察
4. 硏究問題
Ⅲ. 硏究方法 및 節次
1. 調査對象 및 資料의 蒐集
2. 調査道具의 作成
3. 資料의 分析方法
4. 暴力集團의 一般的 性格
Ⅳ. 硏究結果 및 解析
1. C.T.S.(Conflict Tactics Scale) 要人分析
2. 都市家口의 아내暴力實態
3. W.A.I.(Wife Abuse Invenfory) 要因分析
4. W.A.I. 점수와 非暴力集團과의 關係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of the housband's violence, to develop a scale to identify women who are victims of wife abous and to provide evidence of the scale's validity.

* 이 논문은 1987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일반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The Instrument entitled the Wife Abuse Inventory (WAI) and Conflict Tactics Scale (CTS), are administered to 511 women who lives in Taegu are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CTS analysis shows the 42.5% of the sampled house wives are suffered minor violence and 9.0% are suffered severe violence from husband.

2) The WAI is factor analyzed to examine factor components within the scale.

An examination of the rotated solutions suggested that WAI is composed 10 factors.

These factor is labeled 'men's conception of supremency and aggression propensity, 'communication, 'economic difficulties and frustration, 'social activities, 'jealousy, 'children rearing, 'intimacy, 'family relationships in laws, 'affection, 'difference of culture,

3) An analysis of variance show the group mean score of the violence group and the mean score of the non-violence group on the WAI to be significantly diffrent ($P<.001$).

A discriminant analysis produce a significant discriminant function($P<.001$). Using WAI scores as the discriminating variable, 81.15% of the violence and non-violence subjects are classified into their appropriate group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WAI is a reliable device for screening violenced and non-violenced group.

Ⅰ. 序　　論

家族은 社會의 基本的인 單位이자 普遍的인 제1차적 집단으로서 중요한 社會的 意味와 特徵들을 가지고 있다. 그 特徵중 暴力發生集團으로서의 가정의 특수성를 지적하고자 한다.

가족은 相異한 性과 세대로 구성된 文化的 葛藤의 場이며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은 여러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영역에서 가족원들 각각의 기대는 모두 충족되지 않아 다툴수 있는 事象들(events)이 가족내에 많이 존재한다. 또한 家族은 역할능력과 全人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지닌 긴밀한 집단이다. 家族成員間의 긴민한 접촉은 사랑의 감정을 낳기도 하는 한편 적대감이나 증오의 감정을 일으킬 가능성과 함께 暴力을 수반하기도 한다(Coser 1956 ; Scanzoni 1976, 343에서 再引用). 暴力行爲는 상대자에게 신체적인 상해는 물론 심한 굴욕감과 함께 정신병리적인 증상까지 초래하며 그들 자녀들에게 暴力學習의 場이 된다(Steinmentz 1977, 118).

최근 1980년을 前後해서 아내학대 사건이 여러나라에서 획지적으로 社會問題化되고 있다(Hillbermann 1980, 1336-1347 ; Wharton 1982). 우리나라에서도 1983년 '여성의 전화'라는 이름으로 구타당하는 아내를 위한 상담전화가 개설되었으며, 1987년 서울 마포에 구타당하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매맞는 아내의 집'이 개설되었다.

家庭生活問題를 취급해 오고 있는 전문기관의 하나인 韓國家庭法律相談所의 상담내용(1987)에 의하면 부부관계와 이혼의 사유별 분석결과 남녀 모두 6호 사유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 다음으로 3호 사유 즉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남자 27.9%, 여자 19.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료로 미루어 보아 부부간의 폭력문제는 가족의 안정성에 있어서 심각하고 중요한 문

세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내에 대한 暴力行爲에 관한 硏究는 김광일(1985 a)의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조사 및 정신과의 의뢰해 온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精神醫學的인 연구(1985 b)와 아내학대에 대한 理論的 考察(서명선 1984 ; 김정숙 1986)이 있고 일반가정을 대상으로한 분석보고는 몇편의 보고(심재근 1984 ; 김정옥 1985, 1987 ; 김경화 1986)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내폭력의 예방책의 일환으로서 아내에 대한 폭력의 실태파악 및 폭력당할 가능성이 있는 아내를 선별하기 위한 아내학대척도의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1. 暴力의 槪念

初期硏究家들은 暴力에 대한 槪念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가족원간의 힘에 의한 合法的인 행위와 폭력에 의한 非合法的인 행위를 구별하려고 시도했다(Goode 1971). 이것은 가족내에서의 때리는 것은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의 결과였다.

Goode(1971)는 暴力을 身體的 힘에 의한 非合法的인 行爲라고 하였고, O'Brien(1971)은 상대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損傷을 일으키는 행위를 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 Gelles(1972)는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非規範的인 暴力과 訓育을 목적으로서 자녀를 때리는 것을 規範的인 暴力(體罰)이라 하여 非規範的인 폭력과 규범적인 폭력을 구별하였다 Stark와 McEvoy(1970)는 4명의 남자 중 1명, 6명의 여자 중 1명의 비율로, 그리고 피해자 조차도 폭력행위가 타인들간에 일어날 경우만 비합법적인 행위인 暴力으로 看做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보고하였다(Gelles 1972, 25 ; Steinmetz 1971, 664).

Gelles와 Straus(1979)는 타인을 自體的으로 해칠 의도로써 수행된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폭력이라고 定義내렸고, 신체적인 傷害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痛症에서 殺人까지를 暴力範圍에 포함시켰다. Warner와 Brain(1982)은 가족내에 있어서 폭력행위, 특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행위는 규범적·법적 한계를 초월하여 상해를 입히는 肉體的 腕力이라고 하였다.

서명선(1984)은 暴力을 쌍방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완력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人體에 傷害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暴力에 관한 法的인 槪念은 다음과 같다.

폭력이란 物理的 强制力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不當 또는 不法하게 行使된 경우를 가리킨다. 刑法 12條에 의하면 폭력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身體에 대한 危害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脅迫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이다. 여기에서의 暴力은 强制的 暴力으로서 즉, 일정한 행위를 强制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매질, 고문 등의 暴力을 말한다(법률학사전 1986, 1039).

이와같이 暴力에 대한 槪念은 학자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形態의 暴力도 부부간의 葛藤表出 方法으로는 不當하며, 暴力의 위협도 실제의 폭력만큼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前提아래 暴力을 "상대방에게 身體的으로 威脅하거나 身體的인 傷害를 가한 行爲"라고 정의하였으며 '학대'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2. 暴力發生에 關한 理論的 接近

家庭暴力에 관한 硏究가 비록 탐색적인 단계이나 아내폭력을 설명하는 理論이 다소 발달되어왔다.

이들 이론들은 個人內的 理論(Intraindividual theories), 社會心理的 理論(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社會文化的(Sociocultural theories)의 3범주로 나누어지고 이 범주의 理論들은 몇가지의 세부이론을 포함하고 있다.

個人內的 理論으로는 精神病理學論(Psychopathology theory)과 알콜·마약론(Alcohol and drugs

theory), 社會心理的 理論으로는 社會學習理論(Social learning theory), 挫折攻擊理論(Frustration-agression theory), 自己態度理論(Self-attitude theory), 象徵的 相互作用理論(Symbolic interaction theory), 交換理論(Exchange theory), 歸屬理論(Attribution theory)등이 있으며 , 社會文化的 理論으로는 機能理論(Functional theory), 暴力文化理論(Cuffural of violence theory), 社會構造理論(Structural theory), 一般體制理論(General systems theory), 葛藤理論(Conflict theory), 資源理論(Resource theory)등이 있다(Gelles and Straus 1979 ; 560-561).

본 고에서는 아내에 대한 暴力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社會心理的 理論 中 社會學習理論과 挫折-攻擊理論, 社會文化的 理論 中 社會構造理論을 이용하여 아내에 대한 暴力을 考察하고자 한다.

1) 社會學習理論(Social learning theory)

社會學習理論은 行爲를 內生要因과 外生要因의 相互作用(reciprocal interaction)의 見地에서 人間의 行爲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理論에 의하면 個人의 學習바탕은 원래 白紙狀態라고 假定하고 폭력행위를 하나의 학습된 現象으로 설명한다. 즉 개인은 다른 사람의 폭력행위를 관찰,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공격행위의 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공격행위에 대한 禁止解除(disinhibition)를 일으켜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이 없이 暴力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의 행동을 모방했을 때 賞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은 학습되어지기 쉽고 그 모델은 行動의 강력한 決定要因이 되며, 罰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을 그만 두게 하는 效果를 가질 수 있다. 人間은 어떤 바람직한 結果나 强化條件에 따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Bandura 1973 ; Williams 1977). 또한 폭력행위는 타인의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학습되어질 뿐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경험에 의해서도 폭력행위는학습되어질 수 있다. Steinmetz(1977)와 Straus, Gelles 그리고 Steinmetz(1980)는 暴力은 暴力을 낳는다는 事實을 支持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의 頻度가 높을수록 폭력의 희생자가 폭력적인 配偶者나 父母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다. Gelles(1972)는 虐待家庭과 非虐待家庭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은 성장시의 가정(出生家族)에서 학습된 행동의 결과이며, 家庭은 개인 상호간의 暴力에 대한 規範, 價値, 策略 技術 등을 학습하는 訓練場이라고 결론지었다. 家族은 역동적인 단위(dynamic unit)이므로 家族間 또는 世帶間의 相互 社會化過程(reciprocal-socialization)으로서 暴力을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유용하다 하겠다.

2) 挫折-攻擊理論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挫折은 "目的達成을 방해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Staub 1971), 攻擊은 "他人에게 해로운 刺戟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Buss 1971).

따라서 좌절-공격이론은 폭력행위를 目的이 있는 활동이 방해 받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로 假定한다. 인간은 자기의 목표가 차단 당했을 때 그 차단하는 대상물에 대하여 攻勢로 나오거나 혹은 그보다 다른 약한 대상물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개인의 社會的 努力이 끊임없이 좌절되면 분노와 근심으로서 공격이 발생한다는 假定에 의해서 공격행위를 설명하고, 가족을 구조적·기능적인 면에서 行爲의 挫折이 발생하는 곳으로 보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좌절을 일으키는 곳으로 본다. 家族 본래의(고유의) 挫折로서는 子女養育에 대한 부담과 불안, 結婚 配偶者에게만 한정된 性機能,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단순히 家庭離脫만으로써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능력과 관심도에 의하기보다 役割과 책임감의 기준으로서 일이 떠맡겨지는 것, 그리고 時間·空間의 重複 및 많은 갈등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O'Brien(1971)은 離婚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暴力 男便集團은 非暴力 男便集團에 비해 職業的으로 더많이 不滿足해 하고 있으며 폭력집단의 남성들은 家族扶養者로서의 挫

折로 인하여 아내에게 暴力을 가한다고 밝혔다.

3) 社會構造的 理論(Social structural theory)

社會構造的 理論은 暴力을 허용하는 그 사회의 文化的 規範, 傳統, 價値, 構造 등의 주위의 상황과 불공평한 분포로 된 사회구조가 아내에 대한 폭력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假定한다.

Petersen(1980)과 Straus(1976)는 사회의 구조 가운데 男女差別主義의 社會構造가 아내에 대한 暴力을 유발하고 그 폭력이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내虐待와 관련되어진 남녀차별주의의 사회구조적 定位은 다음과 같다(Straus 1976, 54-76)

(1) 男性의 權威에 대한 防禦

Straus(1976)와 Williams(1982)는 家族勢力構造를 男性 優位 階級組織으로서 보고 구타당한 여성들은 夫婦勢力 分配에 있어서 상당히 女性下位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상당수의 사람들은 남성들이 家長이 되어야 하고 女性들의 가장 큰 기쁨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家族問題에 있어서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 또한 性的으로는 항상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내의 의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2) 强制的인 男性다움

Parsons(1966)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만 있는 집에서 자란 소년들은 男性主體意識을 발달시키는데 많은 지장을 받는다고 보고 이러한 아이들은 난폭성이 과장되어 攻擊的인 行動類型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男性特性을 주장하려는 이러한 경향이 "强制的인 남성다움"으로 정의되며 强制的인 남성다움은 여성에 대한 勢力과 優位를 굳히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이러한 定義는 强制的인 남성다움이 여성으로 하여금 暴力의 犧牲者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Williams(1982)의 분석과도 일치하고 있다.

(3) 經濟的 제약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인 독립을 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여성들로 하여금 학대받는 結婚生活도 지속해야만하는 희생물이 되게 하여 왔다.

(4) 女子養育

性別에 의거한 가족내의 勞動分配는 자녀양육을 거의 아내에게 부담시켜 왔다. 이로 인하여 직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 家事勞動에서 독립하기를 원하는 여성들도 社會的 支援의 缺乏으로 이를 포기해야만 하게 되었다.

(5) 偏父母家庭에 대한 偏見

子女養育에는 父母가 모두 俱存하는 것이 偏母, 偏父의 경우보다 더 좋다고 하는 문화적인 규범은 편부모 슬하에서는 아이들이 적절히 양육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Straus 1976, 54-76).

많은 여성들은 자녀가 兩父母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대하는 남편에게 머물러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믿어왔다. 이 요인은 전통적으로 女性들이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복합되어 아내虐待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었다.

(6) 女性의 아내로써의 役割에 대한 文化的 規範

여성은 결혼을 하고 子女를 가지는 것이 여성 개인에게 주어진 만족이라고 격려하는 文化的 基準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러한 규범은 여성들로 하여금 학대받는 결혼생활을 이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7) 女性의 否定的인 自我像

일부 여성들은 학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부정적인 자아상 혹은 인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8) 女性을 어린이로 보는 見解

여성은 어린애와 같으며 그들에게 신체적인 처벌을 사용할 수 있는 남편의 歷史的인 權利에 대한 文化的인 고정관념들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유지시키는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9) 男性위주의 犯罪判決體制

사회적 범죄판결 체제가 남성지배적으로 운용된

다던가 가정문제상담에 있어서 상담자들의 인식 및 훈련부족으로 부부문제에서 일방적으로 아내가 참도록 하는 등의 事例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暴力을 유발시키는데 간접적으로 작용된다고 하겠다(Field and Field 1973, 237-239).

3. 아내暴力에 대한 關聯變因別 考察

아내에 대한 暴力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은 대단히 많을 것이며 그 夫婦가 처한 人口學的·生態學的·經濟的 그리고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서 아내에 대한 暴力의 형태와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명확히 밝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본 橋에서는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른 가정환경변인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環 境

Straus et al(1980)은 가정폭력사건이 미국전역에 걸쳐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일어 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대도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보다 더 높은 비율의 配偶者 虐待를 나타내었다.

2) 年 齡

개인의 연령이 결혼생활에 있어서 폭력행위의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부 폭력행위가 30代후반에서 50歲까지의 성숙한 부부에게서 주로 나타난다는 보고(Snell, Rosenwald 그리고 Robey 1964, 107-112 ; Gelles 1972, 121-122)와 함께 부부폭력의 비율은 부부가 35세 이하일 때 가장 높았다(Gayford 1975, 237-245 ; Carlson 1977, 455-460 ; Straus와 그의 동료들 1980, 140-144)는 보고도 있다. 최근에는 부부폭력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보다 젊은 부부에게서 그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전화'(1985)의 事例研究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 暴力을 당하는 여성의 연령은 30歲에서 39歲가 39.38%, 폭력을 가하는 남편의 연령은 30歲에서 49歲가 61.9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옥(1985)은 폭력행위에 있어서 아내의 연령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제시하였다.

3) 結婚生活持續年數

Carlson(1977)은 101명의 구타당한 여성중 45%가 결혼 또는 동거관계를 맺은지 3年 이내에 구타당했음을 보고했다. Roy(1977)는 구타당한 아내 1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들중 대부분이 학대자와의 결혼 또는 동거연수가 7년 이하임을 밝혀졌다.

여성의 전화(1985) 相談事例에서는 결혼후 5年에서 10年이 남편의 구타를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10年에서 15年이었다. 김경화(1986)는 결혼생활지속연수가 아내학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4) 敎育水準

사회계층의 한 지표로서 교육수준과 배우자학대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간에 다소 견해가 다르다.

O'Brien(1971)은 學力이 낮은 남편들이 학력이 높은 남편들보다 신체적 학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미법무성보고(1980)는 교육수준과 배우자학대간의 관계는 미약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의 자료는 어느 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은 자가 초등교육 또는 그 이하의 교육을 받은자 보다 배우자간의 暴力은 더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Hornung, McCullough 그리고 Sugimoto (1981)는 아내가 형식적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에서 그리고 부부폭력의 불일치를 아내학대의 중요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아내의 교육정도가 남편에 비하여 매우 낮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김정옥(1985)은 대구시를 중심으로 일반 가정주

부 673명을 대상으로 부부폭력을 조사한 결과 부부간의 학력차가 클수록 학대의 빈도가 높다고 밝혔다. 김광일(1985)은 구타로 인하여 정신과에 의뢰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학 및 그 이상이 64%,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 18%, 중학수준이 8%, 국민학교 수준이 10%이었고, 無學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김경화(1986)의 보고에 의하면 학력이 낮은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비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남편의 학력은 신체적 학대에서만 有意하고 학력이 낮은 남편들이 고학력의 남편들보다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부간의 학력차는 아내학대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5) 所 得

배우자학대는 여러 소득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낮은 소득수준에서 배우자 학대가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몇몇증거가 있다.

Straus와 그의 동료들(1980)은 소득과 배우자학대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높고 최저생계비(연구당시 $5,999) 이하의소득인 가정이 $20,000이상인 가정 보다 실질적으로 배우자 폭력이 더 많다고 보고했다. Szinovacz(1984)는 펜실바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103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과 부부폭력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과 가정소득간의 관계는 남편의 절대적,상대적인 수입의 관계보다 덜 분명했다고 진술했다. 낮은 소득층에서 부부간의 폭력의 높은 빈도는 이들 가족에 의해서 경험된 고도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반영할 뿐 아니라 扶養者로서의 役割에 실패한데 대한 아내의 비난 및 비평과 남편이 인식한 부양자로서의 책임감과 연결되었다.

김정옥(1985)은 家計收入에 있어서 집단간의 차이가 인정되어 수입이 낮을수록 폭력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6) 職 業

Carlson(1977)은 아내를 학대할 당시의 남편의 직업은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1/3이나 되었고 나머지 비실업상태의 남편중 36%는 비숙련공이었고, 38%는 반숙련공 또는 기술직이었으며, 14%는 판매직 또는 다른 사업에 종사했고 나머지 12%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Petersen(1980)은 사무직에 있는 남편들이 노동직의 남편보다 아내 학대율이 더 낮다고 보고했다. Straus와 그의 동료들(1980)은 노동직에 있는 사람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두배나 높은 학대율을 보였다. 또한 실업상태 또는 시간제 雇用狀態에 있는남편은 완전고용상태에 있는 남편보다 아내학대 비율이 실질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광일(1985)의 연구에 의하면 아내 학대자들의 남편의직업은 다양했으나 회사 사무원이 12%, 목사,상인, 운전수가 각각 10%, 경찰, 실업가가 8%라는 빈도를 보였으며 그 밖에 교수 6%, 장교, 공무원이 각각 4%, 노동자, 목수 , 수위, 교사, 치과의사, 공업기사, 은행원, 약사가 각각 2%이었고, 무위도식자도 8%이었다. 김정옥(1985)은 남편의 직업과 아내학대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인정하고 농업 및 생산직, 판매 및 서어비스직이 폭력도가 높았고, 전문 및 전문기술직, 행정 및 사무직이 폭력도가 낮았다. 김경화(1986)는 직업에 따른 아내학대에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어 직업서열이 낮은 경우 아내학대가 많고 아내의 취업유무 그 자체보다 직업의 종류가 아내를 좌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내학대를 가장 많이 받은 경우는 직업서열이 낮은 주부이며 그 다음이 비취업주부였다. 직업서열이 높은(전문직) 주부들이 가장 낮은 학대를 받고 있었다.

이들 자료들은 저임금과 비숙련직 종사자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배우자학대가 더 높고, 실업 또는 시간제 고용상태에 있는 남편 역시 학대의 비율이 더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7) 暴力觀察과 暴力당한 經驗

많은 연구결과들은 자녀들이 그들이 出生家族에서 부모들간의 暴力을 관찰하였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성장한 후 그들의 生殖家族에서 남성인 경우는 더욱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여성인 경우는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Gelles 1972, 175-176 ; Flynn 1977, 18 ; Parker, Schumaker 1977, 760-761 ; Steinmetz 1977, 105-106 ; Petersen 1980, 394 ; Bruce, Nancy 1985, 420).

Gelles(1976)는 性에 따라 세대간의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 어린시절에 있어서의 신체적 공격은 남성들에게는 아내학대의 가해자로서, 여성들에게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Pagelow(1981)의 연구에서는 세대간의 영향은 남성에게는 존재하였으나 여성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그들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남성의 경우 뒤따라오는 아내학대행위와는 연결지워졌으나 여성의 학대희생과는 연결되지 않았다. Ulbrich와 Huber (1981)는 남자 910명, 여자 1,092명의 전국적인 규모의 표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들의 폭력이 여성의 역할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성에 대한 폭력사용의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게되어 남성은 그들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관찰했다면 여성에 대한 폭력인정을 보다 쉽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Kalmuss(1984)는 2,143명의 표본으로부터 부모들간의 폭력을 보아 온것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매를 맞은 것 보다 본인의 결혼생활에 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특정한 성에 관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의 결혼생활에서 폭력의 가해자나 희생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Kratcoski(1984)는 공격행동으로 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모들의 행위를 목격한 아이들이나 공격행동으로 좌절된 상태를 해소하려는 부모들의 시도를 목격한 아이는 이것을 그들 자신의 행동유형으로 통합하기 쉽다고 하였다. Rosenbaum(1985)은 부모들의 夫婦暴力露出은 그것을 목격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男性, 女性 모두 근심수준을 높여주는 것과 연결되어졌고, 여성들은 우울과 공격수준이 높았음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김정옥(1985)은 父母들간의 폭력노출이 그것을 관찰한 자녀들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4. 研究問題

本 研究의 目的은 부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폭력예방책 및 폭력원인의 분석 일환으로서 아내학대척도(Wife Abuse Inventory)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研究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과 先行研究를 바탕으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研究問題 1〉: 都市家庭內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어느 정도인가.

〈研究問題 2〉: W.A.I. (Wife Abuse Inventory) 점수는 폭력집단과 비폭력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가.

III. 研究方法 및 節次

1. 調査對象 및 資料의 蒐集

調査對象은 대구시내 거주자로서 연구내용을 고려하여 부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내를 대상으로 하였다.

豫備調査는 1987년 10월 12일에서 10월 18일까지 대구 수성구지역에 위치한 家口중[1]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類層別 無選標集方法으로 실시하였으며, 선정된 家口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質問紙를 배부한 후 3일후에 회수하였다. 배부된 50부의 질문지 중 32부가 회수되어 信賴度檢定을 실시하여 豫備調査를 한 후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후 本調査에 착수하였다.

本 調査는 1987년 12월 10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標本抽出은 동구, 서구, 북구, 남구, 중구, 수성구 지역의 家口數[2]에 비례하여 아

주 1) 경남타운 : 표본수 26, 황금아파트 : 표본수 24

과트 居住者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質問紙는 총 1000부를 배부하여 511부가 分析資料로 사용되었다.

2. 調査道具의 作成

本 硏究에 사용된 도구는 暴力의 실태파악을 위한 것으로는 Straus(1979)의 葛藤策略尺度(Conflict Tactics Scale)와 폭력당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판별하기 위한 것으로는 Lewis(1983)의 아내虐待尺度(Wife Abuse Inventory)를 근간으로 하여 open-ended questions의 예비조사를 거쳐 한국가족생활의 구조를 중심으로한 W.A.I.(Wife Abuse Inventory) 도구를 작성하였다.

각 도구의 신뢰도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자료에서 內的一致度(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方法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C.T.S.는 0.859 W.A.I.는 0.932으로 나타나 이들 도구들은 믿을 만한 척도로 인정되었다.

각 도구의 타당도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要因의 표본이 적합한가를 가족학전공분야의 교수 5人의 의견을 따라 내용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W.A.I.는 구성의 성격이 다른 것을 관련시켜 봄으로써 특수성을 보다 명백히 하는 구성타당도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연구문제 2」 W.A.I.점수와 폭력·비폭력집단과의 관계에서 상세히 고찰된다.

C.T.S. 각 문항은 「전혀없다」에 1점, 「거의 매일」에 5점을 주어 리커트형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W.A.I. 각 문항은 「거의 혹은 결코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4점을 주어 리커트형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3. 資料의 分析方法

調査對象者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C.T.S.와 W.A.I.의 要因構造를 파악하기 위하여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4. 暴力集團의 一般的 性格

폭력집단의 일반적인 성격으로는 年齡, 月所得, 結婚生活持續年數, 敎育水準, 宗敎, 家族生活周期, 家口形態, 子女數를 조사하였고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력집단에 있어서의 年齡分布는 아내의 경우 가벼운 폭력집단은 30代가 48.4%, 40代가 22.6%, 심한 폭력집단은 30代가 41.3%, 40代가 26.1%로 나타났고, 남편의 경우 가벼운 폭력집단은 30代(40.1%), 40代(26.7%), 심한 폭력집단은 30代(41.3%), 40代(28.2%)로 나타났다.

家口月所得은 가벼운 폭력집단인 경우 70~110만원(28.4), 50~70만원(27.0%), 20~50만원(22.8%), 110만원 이상(19.1%)의 順으로 나타났고, 심한 폭력집단인 경우 20~50만원(35.6%), 70~110만원(24.4%), 50~50만원(15.6%), 110만원 이상(13.3%)으로 밝혀졌다.

家族生活週期는 2단계 즉 자녀출산 및 미취학기가 가벼운 폭력·심한 폭력집단 각각이 36.7%, 36.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초등교육기, 고등교육기 대학교육기, 자녀의 직업적응기, 신혼기, 회복기의 順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職業에 있어서의 가벼운 폭력집단에 있어서 평교사·6급공무원 이하·일반사원·이에 준하는 직업(27.1%), 무직(24.3%), 가게주인·외판원·상인·이에 준하는 직업(23.2%), 교수·의사·법조인·예술가·대기업사장·이에 준하는 직업(12.7%), 초·중등교감 이상·5급공무원 이상·

주 2) 대구직할시 시정과 제공자료

주 3) 住居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 생활 거주자를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조사의 편리성과 더 많은 화이트칼라층(white collar)의 비율을 인정하여 보다 도시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영관급군인·대기업과장·사업가·은행원·이에 준하는 직업(8.8%), 수위·청소부·점원·일일노동자·이에 준하는 직업(3.9%)의 順이었다. 심한 폭력집단에 있어서도 동일한 順으로 나타났다.

子女數는 2人인 경우가 가벼운 폭력집단에서 44.0%, 심한 폭력집단에서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敎育水準은 아내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가벼운 폭력·심한 폭력집단 모두 각각 46.0%, 5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대학교 졸업, 중학교졸업 이하의 順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는 각 폭력집단 모두 대학교졸업이 49.5%, 4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가벼운 폭력집단인 경우 대학원 졸업이 11.1%이었다.

宗敎에 있어서는 종교가 없는 집단이 가벼운 폭력에 57.9%, 심한 폭력에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家口形態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집단이 가벼운 폭력에 68.7%, 심한 폭력에 63.0%이었다.

Ⅳ. 研究結果 및 解析

1. C.T.S.(Conflict Tactics Scale) 要因分析

C.T.S.(Straus 1979)에 포함된 요인들이 예상대로 추출되는 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要因分析을

표 1. C.T.S. 요인 행렬표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Communality
1	−.02215	−.07779	−.11275	.78527	−.63590
2	−.05529	−.04104	−.02574	.71657	.51888
3	.16044	.20623	.09309	.22429	.12724
4	.70218	.16928	.09060	−.06098	.53364
5	.66162	.21511	.10252	.07898	.50076
6	.70439	.30888	.09669	.01859	.60127
7	.80665	.16573	.10028	−.01177	.68834
8	.75507	.32598	.14596	−.01932	.69807
9	.67535	.53011	.09616	−.01417	.74656
10	.55676	.59480	.11138	.00071	.67618
11	.51272	.59532	.05400	−.05624	.62337
12	.46522	.63368	.17978	−.03921	.65184
13	.38845	.68842	.18374	.00820	.65864
14	.34334	.72505	.20763	−.07115	.69175
15	.11146	.59300	.45566	−.00222	.57170
16	.16224	.40048	.49114	−.06820	.43257
17	.13360	.13162	.93471	−.05981	.91243
18	.05021	.07142	.41499	−.00903	.17992
아이겐 값	7.18137	1.46433	1.11775	.65563	
전체변량 %	39.90	8.14	6.21	3.81	58.06
전체변량 %	68.7	14.0	10.7	6.6	

실시하였다.

요인분석방법은 主要因分析(principal factor with interactions analysis) 方法을 취하였고 회전방법은 요인을 설명하기 쉽도록 요인의 行을 단순화 시키는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법(김병수, 안윤기, 윤기중 그리고 윤상운 1987, 520-561)을 실시한 결과 4요인이 추출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은 각 요인의 요인부하량(factor loacings), 共因量(h^2 : communality), 각 요인의 아이겐 값(eigen value), 전체변량(total varince), 공동변량(common variance)을 나타낸 것이다.

표 2는 요인분석에서 각 요인의 요인부하량이 ±0.35이상인 문항과 그 요인 부하량을 정리한 것이며 적재값이 높은 변수에 비중을 두어 命名이 취해졌다.

그 결과 요인 1에는 6문항, 요인 2에는 6문항, 요인 3에 3문항, 요인 4에는 2문항이 포함되면서 전체 문항 수는 17문항이 되었다.

요인 1은 "심리적인 학대행위"로 이것은 상대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은 가하지 않았지만 혐오감, 적대감, 모욕, 협박의 표현으로서 아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표 2. C.T.S. 요인구조

요 인 명	문항번호 및 내용	요인부하량
요인 1 : 심리적인 학대	7. 다툴시 남편이 귀하에게 소리를 지르는 정도는?	.80665
	8. 다툴시 남편이 귀하를 괴롭히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정도는?	.75507
	6. 다툴시 남편이 발을 구른다든지, 문을 세게 닫는 등의 행동을 한적은?	.70439
	4. 부부간의 의견의 불일치 될때 남편이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며 귀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도는?	.70218
	9. 다툴시 남편이 귀하를 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귀하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겠다고 위협한 정도는?	.67535
	5. 의견이 불일치 될 때 남편이 뿌루퉁해 있기나 문제점에 대해 의논하기를 회피한 적은?	.66162
요인 2 : 신체적인 공격행위	14. 남편으로부터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구타받은 적은?	.72505
	13. 남편으로부터 뺨을 맞은 적은?	.68842
	12. 다툴시 남편으로부터 밀리거나, 움켜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받은 적은?	.63368
	11. 다툴시 남편이 물건을 귀하에게 던진 적은?	.59532
	10. 다툴시 남편이 물건을 던지거나, 때려부수기나 차거나 걷어찬 정도는?	.59480
	15. 남편으로부터 단단한 물건(혁대, 몽둥이)등으로 맞은 적은?	.59300
요인 3 : 생명을 위협 폭 력	17. 남편으로부터 칼 또는 흉기로 생명을 위협받은 적은?	.93471
	16. 남편으로부터 사정없이 마구 목조사 되게 맞은 정도는?	.49114
	18. 실제로 남편이 칼 또는 흉기를 휘두른 적은?	.41499
요인 4 : 의 논	1.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을때 남편이 귀하와 가급적 조용히 의논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는?	.78527
	2. 부부간의 갈등처리 방안으로 남편이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자료)를 제시하는 정도는?	.71657

요인 1이 갖는 변량의 크기는 39.90으로 이는 4개 요인의 총변량의 68.7%이다.

요인 2는 "신체적인 공격행위"로 이는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6가지의 신체적 공격행위를 포함한다.

요인 2가 갖는 변량의 크기는 8.14이며 이는 4개 요인의 총변량의 14.0%이다.

요인 3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로서 아내에게 흉기로 위협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요인 3이 갖는 변량의 크기는 6.21이며 이는 4개 요인의 총변량의 10.7%이다.

요인 4는 "의논 행위"이며 이는 부부갈등의 처리방법으로서의 건설적인 해결책으로 이성적인 논의, 지적인 사고를 사용함을 의미한다.

요인 4가 가지는 변량의 크기는 3.81이며 총변량의 6.6%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난 1년간(1987) 남편으로부터 요인 2 "신체적인 공격행위"에 포함되는 행위를 한번 이상 받은 집단[4]을 '가벼운 폭력집단'이라 칭하고, 요인 3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행위"에 포함되는 행위를 한번 이상 받은 집단을 '심한 폭력집단"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가벼운 폭력집단', '심한 폭력집단"을 통합하여 '폭력집단'이라고 사용하기로 한다.

2. 都市家口의 아내 暴力實態

지난 1년간(1987년) 도시가구내에서의 폭력률은 표 3과 같으며 신체적인 폭력행위의 각 문항에 대한 폭력 실태는 표 4와 같다.

부부불화 갈등시 남편이 물건을 부수거나(35%), 물건을 아내에게 던짐(31.5%), 남편에게 움켜잡힘(34.2%), 남편으로부터 뺨을 맞는 적은 29.4%로서 이러한 행위가 1년에 한 두번 일어나는 가정은 약 30%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한번이라도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구타받은 적이 있는 아내가 20.7%였다. 사정없이 녹초가 되게 맞은 적은 5.3%, 흉기의 위협은 4.1%, 흉기의 사용은 4.9%로 각각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옥의 결과(1985), 즉 물건을 집어던짐(44.7%), 몸이 밀리거나 움켜잡힘(26.9%), 뺨을 맞음(31.7%), 발로 걷어차임(24.2%), 몽둥이로 맞음(19.0%), 흉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음(4.9%)의 폭력과 비교해 볼 때 각 행위간의 약간의 증감은 있었으나 1987년의 본고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3. W.A.I.(Wife Abuse Inventory) 要因分析

Lewis(1983)의 아내학대척도(Wife Abuse Inventory)를 근간으로 하여 본 고에서 작성한 한국가족생활구조를 중심으로한 폭력당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선별하기 위한 척도 W.A.I. 문항들은 어떠한 主要要因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를 알아보는 探査의 目的(exploratory purpose)으로 要因分析이 실시되었다. 사용되어진 要因分析方法을 W.A.I. 에 숨어있는 要因을 찾아내기 위한 主要因分析(principal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Kaiser의 기준에 따라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10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10개의 요인을 본 고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주요인분석에서 선정된 10개의 요인은 배리맥스 방법(Varimax technique)으로 値交回轉(orthogonal rotation) 한 후 얻은 각 요인의 요인

표 3. 아내에 대한 폭력 분포

(%)

전체대상자	가벼운폭력집단	심한폭력집단	전체폭력집단
511	217(42.5)	46(9.0)	263(51.5)

주 4) 본고의 폭력의 개념에서 '상대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행위'를 폭력으로 간주하였으므로 단 한번의 신체적 위협이나 상해도 폭력으로 간주하였음.

표 4. 각 항목별 아내 폭력 분포

(%)

폭 력 항 목		전혀 없다	1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1주일에 1회이상	거의 매일
신체적인 공격행위	1. 다툼시 남편이 물건을 던지거나, 때려부수거나, 차거나 걷어찬 정도는?	333(65.9)	148(29.0)	25(4.9)	4(0.8)	2(0.4)
	2. 다툼시 남편이 물건을 아내에게 던진적은?	350(68.5)	138(27.0)	19(3.7)	3(0.6)	1(0.2)
	3. 다툼시 남편으로부터 밀리거나, 움켜잡히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받은 적은?	336(65.8)	155(30.3)	17(3.3)	2(0.4)	1(0.2)
	4. 남편으로부터 뺨을 맞는 적은?	361(70.6)	134(26.2)	9(1.8)	5(1.0)	2(0.4)
	5. 남편으로부터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구타받은 적은?	405(79.3)	92(18.0)	10(2.0)	2(0.4)	2(0.4)
	6. 남편으로부터 단단한 물건(혁대, 몽둥이등)으로 맞은적은?	477(93.3)	27(5.3)	3(0.6)	2(0.4)	2(0.4)
생명을위협하는폭력행위	1. 남편으로부터 사정없이 마구 녹초가 되게 맞은 정도는?	484(94.7)	24(4.7)	3(0.6)	0(0.0)	0(0.0)
	2. 남편으로부터 칼 또는 흉기로 생명을 위협 받은적은?	490(95.9)	18(3.5)	2(0.4)	1(0.2)	0(0.0)
	3. 실제로 남편이 흉기를 휘두른 적은?	486(95.1)	21(4.1)	2(0.4)	1(0.2)	0(0.0)

부하량, 共通量, 아이겐값, 전체변량, 공통변량은 표 5 와 같다.

요인 1의 아이겐 값이 11.73으로 10개의 요인중 전체 요인구조에서 요인 1이 차지하는 비중은 45.5%로서 가장 크다.

요인 2는 14.4%, 요인 3은 7.2%, 요인 4는 6.5%, 요인 5는 5.3%, 요인 6은 5.3%, 요인 7이 4.6%, 요인 8이 4.2%, 요인 9가 3.7%, 요인 10이 3.3%를 차지하였다.

각 요인부하량이 ±0.35이상인 문항을 뽑아 정리한 요인 구조는 표 6과 같다.

그 결과 요인 1에는 21문항, 요인 2에는 8문항, 요인 3은 6문항, 요인 4는 5문항, 요인 5는 3문항, 요인 6은 3문항, 요인 7은 2문항, 요인 8은 3문항, 요인 9는 1문항, 요인 10은 1문항으로서 10개의 요인에 포함된 문항수는 53문항이었다.

각 요인의 命名은 각 요인에서 0.35이상인 요인적재값을 가진 변수들 중 적재값이 높은 변수에 비중을 두어 命名이 취해졌다.

요인 1은 "男性優越意識 및 攻擊性"으로서 아내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며 아내를 무시하는 경향과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성격이 급하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내용을 포함한다. 요인 1이갖는 변량의 크기는 17.77로서 이는 공통변량 45.5%를 설명해 주었고 아이겐값은 11.73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요인 2가 가지는 변량의 크기는 5.64로서 공통변량에 14.4%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3은 "經濟的인 不滿 및 挫折"요인으로서 생활필수품 구입에 여려움을 직면하고 있거나 자주 직업을 바꾸거나 실직한 상태로 경제적 생활에 좌절하고 있는 상태의 내용을 포함한다. 요인 3이 갖는 변량의 크기는 2.82이며 공통변량의 7.2%를 설명해주고 있다.

요인 4는 "社會的인 活動"으로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남편의 활동참여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요인 4가 갖는 변량의 크기는 2.55

분할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요인 10	Communality
1	.15965	.04756	.00664	-.09651	.44641	.15010	.12886	-.03695	.18125	.02905	.31056
2	.00200	.11987	.30900	.29444	.10090	-.03178	-.27647	.03167	-.03622	.04015	.28808
3	.47790	.20960	.00756	-.08997	-.09426	.17184	.24780	.06359	.07978	-.01857	.39104
4	.41765	.16351	.18526	.05152	.14171	.32294	.07752	.08487	.08851	.15562	40778
5	.04119	-.02306	.04785	.53701	.11360	-.01205	-.25846	.22020	.00054	.05470	42423
6	.15689	.12127	.59039	-.07153	.07719	.10793	.02384	.05915	.12395	-.01842	.43038
7	.54424	.26914	.10910	.01260	.07823	.06950	.09499	.19360	.15441	-.01259	.46215
8	.26889	.19113	.17380	-.08917	.07672	.02578	-.02432	.24068	.21450	.15659	.28259
9	.31099	.20768	.07391	-.29423	.19873	-.01572	-.05559	.10542	.13798	.00360	.30488
10	.22385	.00829	.31449	-.03128	.06573	-.02072	.10143	.26111	.15637	.12605	.27361
11	.31671	-.10010	-.05970	.02626	.31252	.18546	-.02812	-.18613	-.08987	-.09124	.29849
12	.35230	.14797	.08949	-.10587	.11188	.01182	.10113	.02049	.32769	-.15801	.32088
13	.21115	-.05548	.23098	-.16713	.03948	.20136	.06465	.11067	.33416	.15267	.32240
14	.31931	.28368	.06833	-.03653	.12076	.45096	.11034	.21637	-.00944	.02875	.46628
15	-.00694	.17002	-.05833	.34298	.14330	-.08707	.05878	-.21731	.12532	.05543	.24757
16	.02011	-.20494	-.03833	-.46287	.09931	-.06585	.02369	.03498	.16139	.01945	.30053
17	.16808	.10190	.01266	.10548	.12666	.56365	.06909	.13273	.13948	.01614	.42577
18	-.00021	-.16040	.22511	-.31159	-.03750	-.07319	.01251	.04910	.01542	.18198	.21618
19	-.05048	.29592	.00242	.40465	-.24842	.04049	.05342	-.06140	-.01213	.10084	.33416
20	.62717	.11426	.00735	.03862	.03244	.11439	-.05218	-.07152	.17271	.06434	.46389
21	.28135	.19795	.00109	.02123	.05235	.42720	.17566	.46446	-.00584	.10502	.56168
22	.12126	.37400	.15475	.21423	.01432	.03809	.00499	-.10923	.02353	.14630	.25999
23	.50480	.03608	.05123	.17519	.08189	-.00385	.17714	.24681	.20291	-.09099	.43791
24	.68513	.11675	.03208	.00806	.09910	.26421	.18654	.12557	.05270	-.03632	.61841
25	.20392	.25617	.02096	-.02642	.18968	.32070	.27641	.48104	-.02262	-.12747	.57173
26	.55614	-.00802	.14119	-.18227	.04838	-.00299	.00344	.11269	.32082	-.06532	.48475
27	-.04369	.10604	-.16262	.42543	-.14954	-.07529	.29628	-.09877	.07020	-.00841	.35115
28	.20990	.06625	.08467	.04486	.14327	.13890	.18592	.04781	-.08087	.29549	.22816
29	.63265	.00604	.17216	.05867	.07558	.01852	.16744	.06987	.03989	-.09925	.48377
30	.09935	.33222	-.06711	.08015	.04477	.20443	.12506	.02843	.37824	.04445	.33645
31	.27827	.13670	.41519	.03112	.09097	.03518	.00829	-.05978	.13549	-.28701	.38336
32	.66901	.12530	.07531	.05068	.18670	-.05369	.04969	-.09208	.07220	.07487	.53102
33	.17028	-.14384	.03466	.10689	.12314	.05770	.05682	.43806	-.03976	.11850	.29155
34	-.02399	.16113	.08778	.60290	-.01401	-.09930	-.16669	.05892	-.00958	.01123	.43927
35	.66058	.23448	.06041	-.07335	.00389	.31391	.00013	.09792	-.03704	-.10622	.62106
36	.47644	.33412	.05353	.03318	.25574	.20249	.02529	-.06987	-.17469	.02180	.48551
37	.57941	.18638	.29177	.04006	.26448	.04894	-.04412	.01169	.10708	-.16217	.56938
38	.04636	.43358	.00422	.22716	-.04939	.12751	.03309	.10405	.29638	.25560	.42555
39	.56179	.20958	.16746	-.00892	.15838	.06813	-.02474	.05844	-.03120	-.04367	.42430
40	.35949	-.04928	.06785	.07449	.60037	.00416	.06841	.07568	-.03196	-.04071	.51537
41	.23862	-.02535	.10524	.03600	.55461	.14350	.09917	.21729	.00546	-.02150	.45568
42	.49698	.03272	.12069	.06727	.17483	.02752	.09503	.09463	.11766	.16104	.39624
43	.18927	-.08631	.08433	-.09155	.00506	-.16842	.40120	.15833	.22053	.00780	.32189
44	.05032	-.02106	.20987	.10378	.07733	.60408	.08228	-.00468	.02550	-.03119	.43709
A45	.24159	.02640	.01572	.06752	-.05118	-.02618	.02816	-.01725	-.04289	.04155	.46351
A46	.19994	.47017	.17513	-.00629	.12264	.18386	.07828	.11175	.16086	-.00227	.38509
A47	.20265	.45140	.10836	.11314	.06131	.03181	.04694	.08420	.05025	-.08322	.29289
A48	.15874	.38016	.06735	.18876	.04285	-.02781	.14160	.13169	-.00979	-.16646	.27731
A49	.17494	.70055	.04140	.13582	-.09903	.03026	.02271	.04716	-.10947	-.00466	.56700
A50	.21733	-.17588	.43419	-.00585	-.02059	.18468	.25970	.05488	.11583	.05495	.38814
A51	.45461	.06178	.17398	.04601	.37555	.11354	.04890	-.15285	.04943	.13071	.44209
A52	.11255	-.02169	.08240	.04181	.08525	-.04612	.04440	-.27848	-.10816	.01163	.12242
A53	-.02830	.51695	.06062	.16098	.09491	.08605	-.05644	.04158	.15953	.06550	.34869
A54	.45706	.25092	.07259	-.01548	.23549	.10969	.25918	.05377	.04927	.23779	.47389
A55	.42725	-.07020	-.02498	.08881	-.00107	.20085	.33950	-.08044	.02728	.09474	.36778
A56	.9980	.12009	.14617	.1186	.16776	.05521	.43314	-.07744	-.05850	-.03628	.27543
A57	.07967	.30138	.57238	.07939	.02030	.05691	.00118	.16829	-.21046	.06370	.51142
A58	.49193	.09719	-.00531	-.01746	.11042	.01483	.44200	.14067	-.14546	.08626	.50795
A59	.10335	.41098	.41297	.03289	.01246	.12869	-.15111	-.21744	.00772	.04325	.43999
A60	.09965	.27725	-.01733	.30024	-.11876	.10652	.08171	.07567	-.00375	.12982	.21396
A61	.44864	.11414	.17298	.02006	.21176	.16164	.17309	.07290	-.12108	.24577	.42593
A62	.12262	.03981	.53820	.14270	.04351	.10308	.23964	.06127	-.05560	.10910	.41534
A63	.22896	.10841	.14413	.05269	.27918	.11953	.32735	-.03804	.12209	10182.	.31383
A64	.32388	.08854	.13620	-.01920	.07479	.0773	.21117	.06014	.05323	.40548	.35302
A65	.11815	.03402	.04945	-.16095	.14935	.05084	.29281	.03742	.18427	.03414	.19062
A66	.39680	.27024	.10782	.17127	.31336	.01765	.23150	.01115	.07659	-.07149	.43463
아이겐 값	11.72609	3.72353	1.86362	1.67980	1.36920	1.35541	1.18198	1.07665	.96320	.85225	
전체변량 %	17.77	5.64	2.82	2.55	2.07	2.05	1.79	1.63	1.46	1.29	39.07
공통변량 %	45.5	14.4	7.2	6.5	5.3	5.3	4.6	4.2	3.7	3.3	

표 6. W.A.I. 요인구조

요 인 명	문항번호 및 내용	요인부하량
요인 1 : 남성우월 의식 및 공격성	24. 남편은 강압적으로 나를 지배하려 한다	.68513
	32. 남편의 사소한 일에 감정을 폭발시킨다	.66901
	35.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66058
	29. 남편은 이기적이다.	.63265
	20. 남편은 성격이 지나치게 급하며 화를 잘낸다.	.62717
	37. 남편은 자제력이 약하다.	.57941
	39. 남편은 욕설을 잘한다.	.56179
	26. 남편은 자만심에 차있다.	.55614
	7. 남편은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지 않는다.	.54424
	23. 남편은 성격이 지나치게 냉정하다.	.50480
	42.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때리는 일은 일종의 부부싸움으로서 문제시 할 필요가 없다고 남편은 생각한다.	.49698
	58. 남편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을 보면 한심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	.49193
	3. 남편은 가정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주로 혼자 결정한다.	.47790
	36. 남편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	.47644
	54. 남편과 나는 관심있는 얘기거리가 다르다.	.45706
	51. 남편과 나는 하찮은 일 때문에 다툰다.	.45461
	61. 남편은 "여편네와 북어는 두들길수록 맛이 난다"는 옛말은 일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	.44864
	55. 주부는 가정안에서 남편 위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남편은 말한다.	.42725
	4. 남편은 가사(요리 또는 집안살림)에 대해 불평한다.	.41765
	66. 남편과 나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39680
	12. 남편은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35230
요인 2 : 커뮤니케이션	49. 남편과 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는다	.70055
	45. 남편과 나는 문제가 생겼을때 함께 토론한다.	.62640
	53. 남편과 나는 만족스런 성적관계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51695
	46. 남편과 나는 자녀훈육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	.47017
	47. 남편과 나는 영화나 운동과 같은 여가 활동을 함께한다.	.45140
	38. 남편은 나의 성적욕구를 항상 이해해 준다.	.43358
	48. 남편과 나는 먼 친척들과도 관계를 유지한다.	.38016
	22. 남편은 나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다.	.37400
요인 3 : 경제적인 불만 및 좌절	6. 남편은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생활에 좌절하고 있다.	.59039
	57. 남편과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57238
	62. 남편과 나는 꼭 사야 할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속상해 한다.	.53820

	50. 남편과 나는 놀러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난다.	.43419
	31. 남편은 자주 직업을 바꾸거나 실직한 상태로 있는 때가 많다.	.41519
	59. 남편과 나는 앞날을 위해 경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41297
요인 4: 사회적인 활동	34. 남편은 지역사회에서 친구들이 많다.	.60290
	5. 남편은 그의 친구들과 잘 지낸다.	.53701
	16. 남편은 지역사회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46287
	27. 남편은 부부가 함께 술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42543
	19. 남편은 가정의 일상사에 있어서 내가 집장식을 자주 바꾸는 것을 좋아한다.	.40465
요인 5: 질 투 심	40. 남편은 질투심이 강하다.	.60037
	41. 내가 남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대해서 남편은 불만이다.	.55461
	1. 남편은 내가 남편아닌 다른 남성에게 고의적으로 매력을 끌려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44641
요인 6: 자 녀 문 제	44. 내가 자녀에게 무관심하다고 남편은 말한다.	.60408
	17. 남편은 내가 어머니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56365
	14. 남편은 내가 아내로서 부족하다고 말한다.	.45096
요인 7: 친 밀 도	56. 남편과 나는 지금보다 몇년 전에 더 사이가 좋았다.	.43314
	43. 내가 자녀에게 너무 치나치게 관심을 쏟는다고 남편은 말한다.	.40120
요인 8: 시가족과의 관계	25. 남편은 내가 시댁식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다.	.48104
	21. 남편은 시부모 방문시 나의 태도에 불만이다.	.46446
	33. 남편은 시댁식구 앞에서 나에게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	.43806
요인 9: 애 정 표 현	30.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은 만족하고 있다	.37824
요인 10: 교 양 차 이	64. 남편과 나는 교양차이가 심하다	.40548

이며 공통변량의 6.5%를 설명해주고 있다.

요인 5는 "질투심"으로서 아내의 애정에 대한 불만 및 남편의 질투심의 내용을 포함하는 요인으로서 요인 5가 갖는 변량의 크기는 2.07로서 공통변량의 5.3%를 설명해주고 있다.

요인 6은 "子女問題"로서 자녀에 대한 부부간의 태도차이와 이에 대한 남편의 불만으로서 변량의 크기는 1.79, 공통변량의 5%를 설명해주고 있다.

요인 7은 "친밀도"로서 변량의 크기는 1.79, 공통변량의 4.6%를 설명한다.

요인 8은 "媤家族과의 關係"로서 시가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부부간의 불일치이며 시가족으로 인한 불만족으로서 공통변량의 4.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9는 "애정표현"의 요인으로서 공통변량의 3.7%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10은 "교양차이"의 요인으로서 공통변량의 3.3%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상의 10개 요인중 어느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는 13문항은 10개 요인 이외의 특수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W.A.I. 구성요인으로는 "남성우월의식 및 공격성", "커뮤니케이션", "경제적인 불만 및 좌절", "사회적인 활동", "질투심", "자녀문제", "친밀도", "시가족과의 관계", "애정표현", '교양차이"로 유형화되었다.

4. W.A.I. 점수와 非暴力 集團, 가벼운 暴力集團, 심한 暴力集團과의 關聯

비폭력집단과 폭력집단의 W.A.I. 점수에 따라 頻度分布表(frequency polygon)와 暴力率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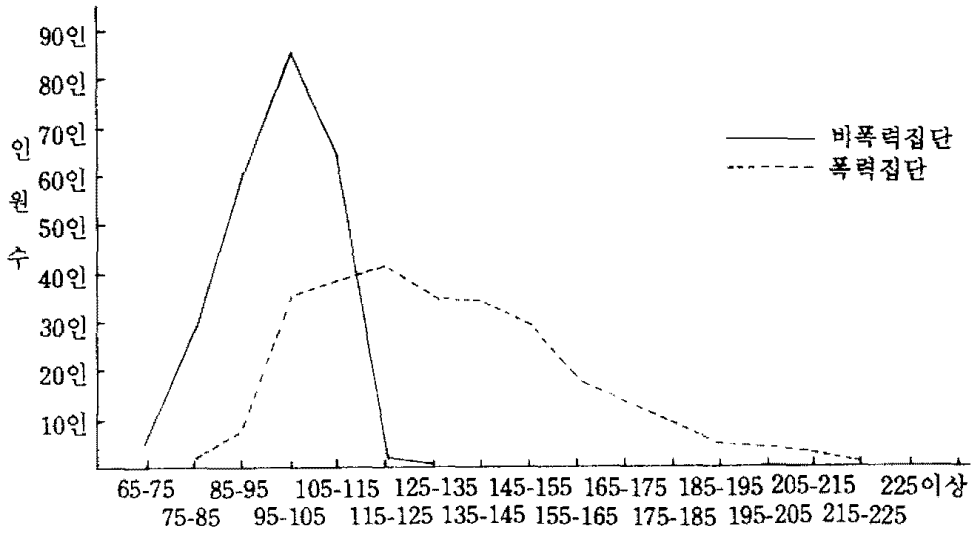

그림 1. W.A.I. 점수에 따른 비폭력·폭력집단의 빈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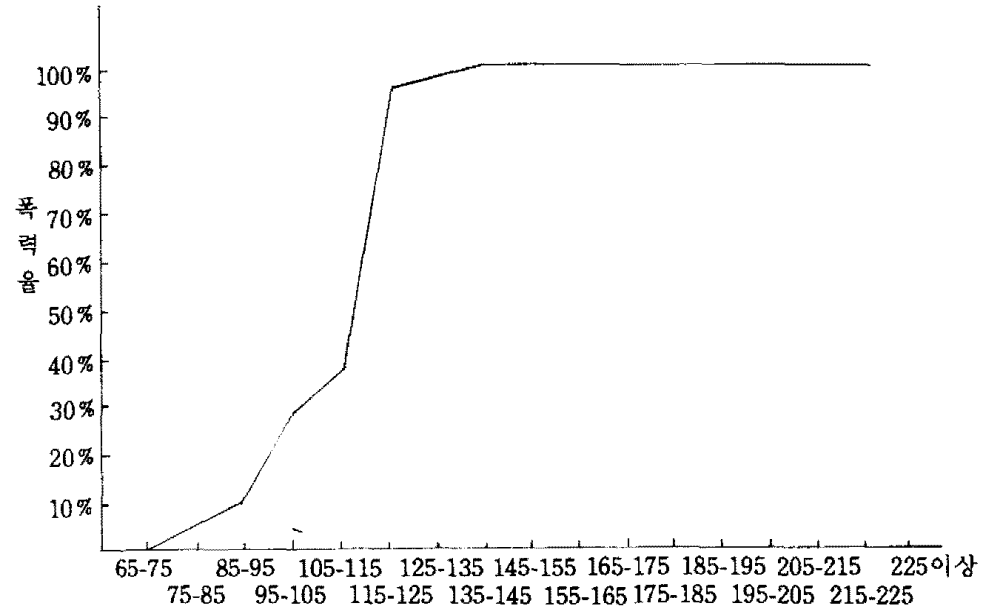

그림 2. W.A.I. 점수에 따른 폭력율.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W.A.I. 점수에 의한 폭력률은 W.A.I.점수가 낮을 수록 폭력률은 낮고 145점 이상에서는 100%의 폭력률을 보여 W.A.I. 총 점수가 145점 이상을 받으면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W.A.I. 척도에서 산출된 각 집단에 있어서의 W.A.I.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는 표 7과 같고 각 집단간의 差의 검증은 표 8과 같다.

전체대상자들의 W.A.I. 평균점수는 124.16이고 비폭력 집단의 평균은 107.97 가벼운 폭력집단의 평균은 136.85, 심한 폭력집단의 평균은 151.74로서 집단의 평균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P<.001$). 이러한 결과로서 W.A.I. 척도는 W.A.I. 점수로서 폭력·비폭력집단을 구별하고 폭력 당할 여성을 확인하는 척도로서의 타당도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다.

또한 이 研究問題에 대한 또 다른 근거자료로서 이들 집단들이 判別變因 즉 W.A.I. 총 점수에 의해서 구별될 수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判別分析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正準判別函數(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을 보여주었고 함수와 집단간의 正準相關關係는 0.73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正準相關은 함수의 판별력의 指標(indicator)로서의 효과를 가지며 함수와 集團選定이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느냐를 나타낸다. 判別分析 結果表는 표 9와 같다.

Wilk's Lambda .57, $\chi^2=250.45$, df=1로 집단간에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분석결과 실제집단에 정확히 분류된 사례들은 전체의 81.15%에 달한다. 즉 이것은 판별함수인 W.A.I.점수가 폭력집단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7. 비폭력·가벼운·심한 폭력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집 단	인 원 수	평 균	표준편차
가벼운 폭력 집단	217	136.85	21.36
심한 폭력 집단	46	151.74	29.88
비폭력 집단	248	107.97	10.34
전 체 집 단	511	124.16	

표 8. 집단의 분산분석

변 량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집 단 간	134911.8455	2	67455.9227	207.517***
집 단 내	165131.6536	508	325.0623	
전 체	300043.4990	510		

***P<.001

표 9. 판별분석에 의한 집단의 분류

실제집단(actual group)	N	예상된 집단자격(predicted group membership)	
		비 폭 력	폭 력
비 폭 력	248	233(93.8%)	15(6.2%)
폭 력	263	83(31.5%)	180(68.5%)

percent of "grouped" cases crrectly classification : 81.15%

V. 要約 및 結論

本 硏究는 韓國 都市家庭에서 발생되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暴力의 실태파악 및 남편으로 부터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선별하기 위한 척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얻어진 結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 C.T.S.(Conflict Tactics Scale)의 구성요인은 "의논", "심리적인 학대", "신체적 공격(가벼운 폭력)".,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심한 폭력)"으로 유형화 되었다. 그리고 C.T.S.에 의해 판정된 도시가구내에서의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실태는 지난 1년간(1987)을 통해 한번 이상 물건을 부순것에서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남편은 51.5%이었다.

둘째, W.A.I.(Wife Abuse Inventory)의 구성요인은 "남성우월의식 및 공격성", "커뮤니케이션", "경제적인 불만 및 좌절", "사회적인 활동", "질투심" "자녀문제", "친밀감", "시가족관계", "애정표현", "교양차이"로 유형화되었다.

세째, W.A.I.점수 로써 폭력집단과 비폭력집단간에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差를 비교해 본 결과 집단간에 매우 유의미한 差($P<.001$)를 보였고 판별분석 결과 W.A.I. 점수에 의하여 폭력집단, 비폭력집단에 분류된 사례는 81.15%로 나타났다. 따라서 W.A.I.는 폭력·비폭력집단을 변별하는 능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바탕으로한 提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얻어진 W.A.I.(Wife Abuse Inventory)는 가족문제취급기관에서 아내학대문제로 의뢰해 온 내담자들에 대한 학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선택의 과정에서 상대와의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결혼전 상담의 도구로서 도움이 된다. 또한 아내학대치료의 평가자료로서 가능하다.

둘째, 아내에 대한 폭력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개인의 內的 原因을 찾아 상담함과 동시에 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인식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선정이 대구지역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간, 가족환경별로 비교연구함을 기대한다.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한 調査結果를 일반화 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내용의 조사결과가 수차례 반복되어야 할 줄 안다. 따라서 本 調査硏究에서는 현단계에서의 일시적인 결론을 얻으려고 시도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사실 발견은 새로운 조사연구를 위한 가설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계속됨으로서 한국도시가족에 있어서의 暴力理論이 정립되어 나갈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김광일 a :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조사. 정신건강연구 *3* : *218-234, 1985*
2) 김광일 b : 구타 당하는 아내 *50*예의 정신의학적 연구. 정신연구 *3* : *218-256, 1985*
3) 김경화 : 아내학대의 영향변인에 대한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4) 김정숙 : 가정내의 폭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아내구타를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5) 김정옥 : 도시부부의 갈등 해결 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폭력행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3*(*2*) : *91-110, 1985*
6) 김정옥 : 도시부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아내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7) 김병수·안윤기·윤기중·윤상운 : *SPSS*를 이용한 통계자료 분석. 서울 : 박영사, *1987*
8) 법률학사적 : 서울 : 법문사, *1986*
9) 서명선 : 아내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구조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0) 심재근 : 가정내의 폭력과 공격성 -아내 구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1) 여성의 전화 : 개원 *2*주년 사례연구 보고서
12)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 상담사건 통계, *1987*
13) Bandura A : *Aggression :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Jersey : Prentice-Hall, 1973*
14) Bruce R & Nancy B : *Courtship violence experienced by abused wives : Similarities in patterns of abuse. Family relations 34(3) : 419-424, 1985*
15) Buss A : *Aggression pays. In singer J(Ed), The control of aggression and violence. New York, London : The Academic Press, 1971*
16) Carlson B : *Battered women and their assailants. Social work(November) : 455-460, 1977*
17) Field M & Field H : *Marital violence and the criminal process : neither justice nor peace. The social service review 47(2) : 221-240, 1973*
18) Flynn JP : *Recent findings related to wife abuse. Social casework 58(1) : 13-20, 1977*
19) Gayford JJ : *Battered wives.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15(4) : 237-245, 1975*
20) Gelles RJ : *The violent home. Beverly hills,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1972*
21) Gelles RJ : *Abused wives : Why do they stay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4) : 659-668, 1976*
22) Gelles RJ & Straus M :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 toward a theorectical integration. In Burr W, Hill R, Nye FI & Russ I(Eds), Contemporat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1). New York : The Free Press, 1979*
23) Goode WJ : *Force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4) : 624-636, 1971*
24) Hillbermann E : *The wife beater's wife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11) : 1336-1347, 1980*
25) Hornug CA, McCullough BC & Sugmoto T : *Status relationships in marriage : risk factors in spouse ab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 675-692, 1981*
26) Kalmuss D :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1) : 11-19, 1984*
27) Kratcski PC : *Perspectives on inter-family violence. Human relations 37(6) : 443-454, 1984*
28) Lewis BJ : *The development and inital validation of wife abuse inven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lege of education, university of South Forida, Tempa, 1983*
29) O'Brien J : *Violence in divorce-prone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4) : 692-698, 1971*
30) Pagelow M : *Factors affecting women's decisions to leave violent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se 2 (December) : 391-414, 1981*
31) Parker B & Schumaker D : *The battered wife syndrome and violence in the nuclear family of origin : a controlled pilot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67(8) : 760-761, 1977*
32) Parsons T : *Certain primary sources and patterns of aggression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western world, essays in sociological theory. New York : The Free Press, 1966*
33) Peterson R : *Social class, social learning and wife abuse. Social sevice review September : 390-406, 1980*
34) Rosenbaum BF : *The effects of parental marital violence on young adults, an exploratory inventig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2) : 467-472, 1985*
35) Roy M : *A current survey of 150 cases. In Roy M(Ed), Battered women : a psychosocialogical study of domestic violence.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1977*
36) Scanzoni L & Scanzoni J : *Men woman and change. McGraw Hill Book Company, 1976*
37) Snell JE, Rosenwald R & Robey A : *The wife-*

beater's wife : a study of family interac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1 : 107-112, 1964

38) Stark R & McEvoy J : *Middle class violence. Psychology today 4(November) : 52-65, 1970*

39) Staub E : *The learning and unlearning of aggression. In singer J(Ed), The control of aggression and violence. New York, London : The Academic Press, 1971*

40) Steinmetz SK : *Occupation and physical punishment : a response to statu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4) : 664-666, 1971*

41) Steinmetz SK : *The cycle of violence, a division of Holt, Reinhalt and Winston. CBS Inc, 1977*

42) Straus MA : *Sexual inequality, cultural norms and wife-beation. Victimology 1(Spring) : 54-76, 1976*

43) Straus MA :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s (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 75-88, 1979*

44) Straus MA, Gelles RJ & Steinmetz S : *Behind closed doors :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 Anchor Books, 1980*

45) Szinovacz ME : *Economic resources, wife's skepticism and marital vio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Psychiatry 3(4) : 419-437, 1984*

46) Ulbrich P & Huber J : *Observing Parental Violence : distribution and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 623-631, 1981*

47) U.S. Department of Justice : *A survey of spousal violence against women in Kentukey.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rion, 1980*

48) Warner CG & Brain GR : *Management of the physically and mentally abused : emergency assessment intervention and counseling. Norwalk : Applention-Century Crops, 1982*

49) Wharton CS : *Redifining woman batterning, the construtions of a social problem, Ph. 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82*

50) Williams JH : *Psychology of women : behavior in a biosocial context. New York : W.W.Norton, 1977*

51) Williams JH : *Psychology of women : behavior in a biosocial context (2nd ed). New York : W.W Norton, 1982*